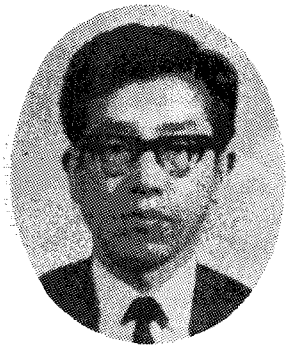
70年代 韓國企業의 未來像

—過去의 企業生態와 未來의 向方—



서울大學校商科大學 敎授

韓 義 泳

1.

1960年代의 韓國經濟는 確實히 高度成長의 連續뿐이였다. 特히 60年後半期의 그것은 檀君以來 最高의 記錄이라 自處할 만치 年 平均 10%以上의 높은 成長率을 示顯하였고 또 그러한 成長率이 世界에서도 그 類例를 찾어 볼 수 없을만큼 驚異的이였던 것도 事實이다. 따라서 1次와 2次의 5個年 經濟計劃을 立案했던 當事者 自身들도 미처 豫見치 못했을 程度로 엄청난 高度成長이 이룩되자, 韓國經濟는 오랜 世界의 後進國에서 離脫하여 바야흐로 世界의 中進國을 向해 펌박질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결코 過言이 아니다.

事實, 60年代初에 내 세웠던 「建設·增産·輸出」이라는 政府의 一大「슬로간」이 애당초 한낱 實現性이 희박한 口號로 밖엔 여겨지지 않었던 危憂를 뒤 엎고 불과 몇년 사이에 建設과 增産이 잇닫는 業績을 자아 냈고 그러한 急速度의 業績을 土臺로 輸出額과 輸出量이 每年 幾何級數的으로 숨박꼭질을 하는 輸出 第一主義戰線이 形成되자 얼핏 우리의 經濟는 마침내 自立經濟라는 史上最初의 目標에 멋있게 到達한 것 같은 느낌뿐이다. 그래서 잘만하면 70年代末葉에나 적어도 80年代初葉에는 우리의 經濟도 開放經濟에 挑戰할 수 있는 體制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過信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無理는 아니다.

그러나 外面的인 結果만을 過信하는 自己陶醉的인 見地에서 離脫하여 內面的인 結果에도 分析의 焦點을 돌리는 그러한 自己批判的인 立場에서 본다면 우리經濟의 高度成長이라는 그늘속엔 어덴가 釋然치 않는 암적 要素들이 뿌리깊게 도사리고 있다는 事實엔 깊은 눈길이 애써 미쳐져야 할 것이다. 釋然치 않다기 보다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완연해 지기만 하는 癌的要素들이 뿌리깊게 도사리고 있다는 事實은, 말하자면 世界에서도 그 類例조차 찾어 보기 힘들만큼 驚異的이였다는 우리의 高度成長이 실은 跛行的인 過熱成長의 連續이였다는 事實의 端的인 表現이지 그 아무 것도 아니다.

비록 우리의 經濟成長率이 年 平均 10%를 맹돌고 1人當 GNP가 年 平均 1萬원 以上을 上廻하는 等 實物成長面에서는 그 成長率이 그야말로 刮目的이며 驚異的이라 할지라도 固疾化한 經濟全般의 構造的 不均衡이 經濟成長度에 따라 暫次 是正되어 나가기는 커녕 그 不均衡度는 오히려 經濟成長의 速度에 따라 더욱 累進化하는 듯한 印象만을 짙게 함은 앞날의 持續的인 高度成長에 커다란 暗影을 던져 주고 있다는 證

據일 뿐이다.

이를테면 62年에 16.5%였던 鑛工業比重이 68年에 21.4%로 擴大된 反面 農業比重이 오히려 36.6%에서 28%로 低落하게 된 産業構造의 不均衡, 特히 農工間의 不均衡과 이에 따른 食糧自給率低下라던가, 67~68년의 國內貯蓄率이 平均 14%에 不過했음에도 不拘하고 總投資額의 約 40%以上이 如前히 海外貯蓄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는 國內貯蓄率의 相對的低下現象은 確實히 우리의 高度成長이 不均衡한 跛行的 過熱成長이였다는 實證일 것이다. 더구나 暫次 擴大되어가는 國際收支의 不均衡과 이에 따라 累積되어가는 「인프레」의 壓力은 韓國經濟가 어딘가 그 安定基調에 상당한 威脅을 받고 있는 結果라 看做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기에 昨年末에 韓國經濟를 綜合診斷한 바 있는 IMF(國際通貨基金) 調査團이 이러한 韓國經濟의 癌的要素들을 指摘하면서 持續的인 成長을 爭取하기 위해서는 우선 經濟構造의 不均衡을 是正하여야 한다고 强調하고 結局韓國經濟는 過熱成長을 抑制하고 安定基調라는 基礎부터 먼저 다져야 한다고 덧부친 바도 있는 것이다.

勿論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成長과 安定의 逆行性이란 어느 程度의 限度內에서는 이를 認定치 않을 수 없는 것이 普偏的이지만 우리의 그것 처럼 지나친 成長과 安定의 逆行度는 도리혀 危殆롭기 한이 없기 때문에 長期的인 持續成長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安定基調의 堅固化부터가 問題되지 않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朴大統領이 70年度 施政演說에서 安定基調를 力說하고 過大한 膨脹을 止揚하겠다고 되풀이 다짐한 것도 無理가 아닐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해서 昨今의 우리의 經濟基調가 바로 상당한 過熱狀態에 있으며 不遠間 어떤 政策의 轉換이 不可避하다는 것으로 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던 우리가 애써 이룩해 놓은 高度成長이 실은 安定基調가 缺如된 過熱成長였었다는 事實은 마치 政府의 綜合的經濟政策에는 어딘가 잘 못이 있었다는 表現과도 같을 것이다. 심하게 말해서 全的으로 그 責任이 政府에게만 있다는 말과 같다.

이 말은 얼핏 經濟成長의 擔當者인 民間企業에게는 따라서 아무런 責任도 없다는 말과 같으나 그러한 經濟發展途上의 차질에 責任은 엄밀한 뜻에서 실은 民間企業도 질머 져야할 性質의 것이지 결코 政府만의 責任은 아니다.

비록 經濟計劃의 立案이나 그 執行過程에 있어서의 政策的인 面에서의 차질은 政府에 그 責任이 多分이 있다고 보고 또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經濟成長과 그 安定基調의 構築이란 흔히 政府主導에 依한 計劃經濟에 상당한 몫이 달려 있다고 하지마는 國內貯蓄率의 低下라던가 國際收支의 惡化라던가 혹은 經濟各部門間의 不調和라는 現象들은 따지고 보면 오히려 民間企業에 그 責任이 轉稼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開發途上國이건 開發終豫國이건 間에 적어도 自由主義經濟體制를 標榜하는 諸國家의 國民經濟들은 그 成長過程에 있어 政府의 指揮的役割(指導)보다도 民間企業들의 自主的 役割(主導)이 훨씬 크면 컸지 決코 적지야 않었기 때문이다.

先進國이라는 이웃 나라 日本이나 戰後의 西獨이 바로 그랬고, 또 大部分의 開發途上 國家들이 그랬듯이 經濟成長이 主로 民間企業의 主導에서 誘出되었다는 事實을 勘案한다면 우리의 企業들도 이러한 民間企業主導의 重要性을 再認識하여 企業스스로가 지금까지의 「舊態依然式」이며 「被動的」이며 「靜態的」인 「디렘머」에서 하루 바삐 脫皮하여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그래야 우리 經濟의 암的要素들이 除去될 것이며 또 그래야만 우리의 經濟도 從來의 政府主導一邊倒政策에서 民間企業主導型으로 그 經濟運用「패턴」이 果敢히 轉換될 素地가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民間企業主導에 依한 經濟成長만이 비로서 持續的이며 均衡的인 高度成長으로 이끌어 주는 지름길이며 原動力이라 해도 결코 過言이 아닐 것이다.

2.

이러한 뜻에서 우리의 企業들이 하루 속히 이룩해 노아야 할 일을 간추려 말하자면 「舊態依然式」인 企業生態에서 離脫·跳躍하는 일 뿐이

다.

「舊態依然式」이란 바로 지금 까지의 우리 企業들의 大部分을 가르키는 企業生態의 代名詞이며 「주먹九九式」과 「暗中模索」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內容들이 合쳐진 現代企業以前의 企業生態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은 過去나 現在의 우리네 企業들의 大部分이 마치 株式會社인 양 꾸민 것은 좋았으나 아직도 家族會社가 大部分이며, 따라서 經營과 資本이 어느 一人의 손아귀에 쥐어 졌거나, 株式을 上場하는 會社들이 기껏해야 몇 10社에 지나지 않는다는 等, 그런 常識以前의 舊態依然的인 企業形態論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企業들의 企業觀과 그 生態가 지난 날의 生產第一主義時代의 遺物만을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唯一한 眞理인 양 아직도 信奉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外資를 導入하면 제절로 돈이 굴러 들어 온다거나, 工場을 세우기만 하면 금새 돈이 쏟아진다는 따위의 惡夢을 아직도 最高의 良夢이라고 덮어 놓고 夢想하는 企業觀이 바로 그것이다.

勿論 供給이 全혀 需要를 능가치 못하는, 그러한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product-out)」 販賣者市場이 支配的인 環境下에서는 確實히 生產이 第一이며, 生產하기 위해선 建設工場建設이 잇달어야 하고, 建設이 잇달기 위해서는 國內貯蓄率이 貧弱한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는 되도록 外國貯蓄(外資)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60年初 政府「슬로간」도 建設이요 增產이요 소리 높게 외쳐 온것도 無理야 아니지만, 10年이라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젠 供給이 어느 程度 需要를 능가하게 된 눈치가 엿 보이는 그러한 「팔리는 것만을 만드는(market-in)」 購買者市場性格이 짙어 짐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자나 깨나 生產第一主義를 앞세우고 外資導入一邊側에 넋을 잃은듯한 企業觀은 아무래도 現代企業以前의 企業觀이지 적어도 近代企業의 그것은 아니다.

더구나 여러가지 徵兆로 보아서 60年代의 後半期를 가리켜, 生產보담도 販賣가 難題로 登場하게 되는 「마아케팅」時代라고 우리가 우리時代를 스스로 그렇게 일컫는 것도 덮어놓고 外資를 導入하거나 工場을 建設해서 收支를 마추던 때는 이미 지난지도 오래다고 看做하기 때문이다. 이젠 덮어 놓고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며, 덮어 놓고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까닭은 供給이 需要를 능가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狀態의 購買市場에서는 덮어 놓고 外資를 導入하거나 工場을 建設하다가는 자칫하면 破產이 고작일 뿐이다.

그러지 않어도 요사히 우리의 周邊에서 떠들석하게 論難되는 소위 「不實企業」의 問題도 바로 「덮어 놓고」 導入했거나 만들었다가 결국 破產지경에 이른 數많은 企業中의 단지 表面化된 몇가지 實例에 不過할 뿐이다.

하기야 不實企業出現의 理由를 大別해서 ①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에 따르는 競爭的 淘汰 ②過多한 金利負擔과 自己資本의 貧弱 ③生產施設의 適正規模未達 ④技術水準의 低位 等 個別經濟的理由(該當企業自體의 責任說)와 政府의 非合理的인 外資導入政策 내지 投資政策의 結果로 看做하는 經濟政策的 理由(政府責任說) 等을 들 수 있겠지만, 어디 까지나 「마아케팅」的인 立場에서 본다면 그 까닭은 個別企業들이 綜合的이며 科學的인 市場分析(市場調査)없이 덮어 놓고 (혹은 멋대로) 外資를 導入했거나 工場을 建設한데서 緣由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過去의 生產第一主義時代的인 企業觀이 60年代 後半期의 販賣第一主義時代(마아케팅時)에 도 그대로 踏承되어 왔기 때문이라 看做함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의 企業들은 舊態依然한 企業觀을 불식하고 「마아케팅」이라는 이름의 販賣第一主義戰線을 形成함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外資導入이나 工場建設보담도 導入된 外資를 可及的 速히 返濟하는 收益性의 合理的追求와 이미 建設된 工場의 合理化를 積極模索하는 方向에 全力을 傾注해야 마땅할 것이다.

3.

合理化——. 더 正確히 말해서 產業合理化야말로 70年代에 들어 선 우리 企業의 指標이며,

合理化없이 우리 企業의 體質改善이나 企業觀의 刷新은 없다. 產業合理化없이 各產業分野의 不均衡을 是正하거나 經濟成長의 安定基調를 確保하기란 都是難題인 것도 勿論이다. 그러기에 昨年初부터 大韓商工會議所가 主動이 되어 產業合理化라는 이름의 運動을 展開하기 시작한 것도 無理는 아니다.

이젠 그 運動을 大大的이며 年次的인 事業으로써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듯한 傾向은 정말 뒤떨어진 이 나라의 企業界를 위해 지극히 기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또 비록 그러한 運動이 아직 全國的으로 派及되거나 地域的으로 具體化된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運動의 必要性이 눈으로나마 認識되며, 입으로나마 論議되며, 몸으로 나마 追從되기 시작하였다는 事實만이라도 이 땅의 產業을 위해 몹시 多幸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마아케팅」이라는 거센 바람이 도사리는 20世紀末葉의 企業與件下에서는 어떤 種類의 企業을 莫論하고 적어도 그 어떤 形態의 合理化이든 애써 模索되지 않고서는 오늘과 같은 大量生產과 大量販賣를 直結시킬 수 있는 體制는 결코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大部分의 企業이나, 合理化運動의 산파役을 맡은 大韓商工會議所自體도 그야말로 舊態依然한 合理化槪念만을 아직도 올바른 개념으로 믿고 있는 듯한 徵兆엔 아연失色 할 뿐이다.

한마디 合理化라 해도 실은 가지각색이지만, 우리가 잘못 信奉하고 있는 合理化槪念은 소위 技術的 合理化(技術化)라는 이름의 舊式槪念이지, 적어도 오늘날의 先進國들이 追求하고 있는 新式槪念의 合理化는 아니다. 오늘날의 合理化란 소위 經濟的 合理化(經濟化)라고 일컬어지는 新式槪念이며 그러한 새 合理化의 개념과 옛 合理化개념사이에는 따라서 180度로 그 性格을 달리하는 要素가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元來 合理化運動의 震源地는 獨逸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1920年頃부터 1925年까지의 소위 資本主義의 相對的 安定期에 漸次 全世界에 傳波되었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지만 그때 合理化運動을 最初로 指導한 獨逸生產性本部(RKW)의 『合理化란 理性的인 形成이다』라는 解釋이 오늘날까지도 合理化의 唯一한 개념으로 通用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조금이라도 經濟的成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理性的인 手段의 採擇과 實行이 合理化』며, 結局 生產性 내지 收益性이 向上되기만 하면 그것이 곧 合理化라고 해석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生產第一主義時代가 한참이였던 40餘年前의 그러한 合理化槪念은 其實 技術的 合理化에 關한 槪念이며, 이미 供給이 需要를 능가하게 된 오늘날의 販賣第一主義時代(마아케팅時代)의 合理化개념은 절대 아니다.

製造業者나 中間商, 혹은 其他 써비스業等 全經濟分野에서 行해 졌다고 믿어지는 옛 合理化란 결국 合理化이긴 하되, 擧皆가 該當產業(企業自體만을 위한 技術的 合理化였을 뿐이다. 오늘날 世界의 企業들이 追求하고 있는 合理化란 다만 產業自體만을 위한 40年前의 그러한 技術的 合理化가 아니라, 消費者側의 利害打算의 打開도 兼한 소위 經濟的 合理化라는 이름의 새로운 合理化인 것이다.

勿論 技術的合理化가 經濟的 合理化의 첫 段階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何等 消費者나 購買者를 爲한다는 點에 言及이 없는 合理化槪念은 이미 時代錯誤의 副產物로 둔갑하였다고 看做하여야 하며, 그러한 技術的 合理化 「온리」時代는 이미 바람과 더불어 살아 졌다는 뜻에서 經濟的 合理化가 摸索되어야 함은 當然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商品이나 써어비스는 결국 購買者가 消費하기 마련이며, 또 大部分의 消費財商品市場이 그러했듯이, 技質的 合理化萬能時代의 販賣者市場이 이미 技術的 合理化만으로는 到底히 해결할 수 없는 購買者市場으로 轉換함으로써 技術的 合理化의 結果로 供給이 需要를 능가하기 시작한 『消費者는 王』인 오늘날엔 새로운 合理化(經濟化)의 물결이 밀어 닥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經濟的 合理化란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이런 것 들이다.

가령 極東洋灰會社의 製品인 「너구리」표 시멘트의 生產原價나 販賣費用이 그 어떤 合理化에 依해서 節減되었을 때, 이는 確實히 어떤 合理化

의 德澤임은 틀림이 없다. 極東洋灰自體를 위해서는 지극히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시멘트 한포대의 生產原價가 2千원이며 工場渡價格이 2千五百원이라면, 生產者收益이 한포대當 500원이였던, 너구리표 시멘트가 그 어떤 合理化로 말미암아 生產原價가 1千500원으로 切下되었을 때, 틀림없이 이는 合理化가 實現된 것이다.

그러나 그 工場渡價格이 계속 2千원으로 堅持되었을 때, 이는 다만 技術的 合理化에 不過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合理化는 그 德을 極東洋灰만이 享有하며, 「너구리」표 시멘트를 購入하는 最終消費者에게는 하등 그 惠澤이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技術的 合理化의 惠澤을 最終消費者에게까지 延長시킬 때, 이를 經濟的 合理化라 한다. 이를테면 500원의 原價切下分만큼을(혹은 그 一部라도) 從前의 市販價格에 反映시킬 때 비로소 經濟的 合理化가 成就되는 것이다.

4.

어쨌던 오늘과 같은 購買者市場에 있어서는 特히 이러한 經濟的 合理化가 達成되어야 激甚한 競爭에 이겨나 갈수 있는 姿勢가 確立됨은 물론일 것이다.

經濟的合理化의 規模가 크면 클수록 그 企業의 成長率이 높아 진다는 初學的 認識마저 忘却하여, 겨우 이제야 벌리기 시작하였다는 合理化運動이 기껏해야 技術的 合理化만을 摸索하는 우리네 企業家들의 舊態依然한 思考方式이 이젠 是正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니 겠는가? 어서 消費者나 購買者를 위한 經濟的 合理化에 全力을 傾注하여 올바른 合理化運動이 展開되어야 비로소 우리나라 經濟도 安定基調에 立脚한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래야만 머지 않아 先進國의 隊列에 끼어들 수 있는 要件이 갖추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特히 現代는 『消費者는 王』인 時代이며 消費者없는 메이커는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需要와 供給의 兩面에 惠澤이 미칠 그러한 合理化(經濟化) 運動이 積極展開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70年代의 우리의 企業들은 지금이라도 다 같이 經濟的 合理化 運動의 앞장을 서야할 것이며, 또 그것이 바로 未來를 向한 企業의 姿勢라는 點을 결코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단 合理化뿐만 아니라 機械化, 近代化, 效率化等 그 무슨 「化」字가 붙는 우리의 固有한 漢字들이 가지는 本來의 뜻은 「어떠한 方向」, 「어떠한 理想追求」와 直結되는 「어떠한 運動」을 가리킴이니 「機械化」는 곧 「機械化 運動」을 뜻하며, 「近代化」는 「近代化 運動」이요, 「效率化」는 其實 「效率化 運動」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種類의 「化運動」이라도 시작은 있으나 끝장이 없으며, Comma(休息)은 있되 Full stop(끝장)은 없다는 것이 그 特色이다.

우리가 흔히 指摘하는 簡素化, 統一化, 單純化, 標準化, 規格化 等을 비롯하여, 흔히 들 말하는 機能化, 計劃化, 自由化, 國際化를 爲始하여 하다못해 集中化, 獨占化, 執權化, 一元化等에다 그 反對語인 分散化, 多占化, 分權化, 多元化도 그것이 「理性的인 形成」인 以上 合理化의 一部이며, 合理化의 一部이기 때문에 끝없는 合理化運動임엔 틀림은 없다.

無限이 連續되어 가는 運動——. 바로 그것이 「化運動」이며, 合理化도 그러한 運動의 하나라는 뜻에서 이제 展開하기 시작하여야 할 우리의 合理化運動이 形式的이며 卓上空論的인 『靜止하는 運動』이 되지 않고 名實相符한 『움직이는 運動』이 끝없이 繼承되기만 빌어 마지 않는 마음 간절 할 뿐이다.